

“創立 20週年の 새해를 맞아 ...”



柳 纘 佑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회장

“
불안정한 상황을
맞아 국가자존과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장기적 관점에서
방위산업이 지속적으로
육성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

丙子 年 새해를 맞이하여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국군장병과 방산업체 임직원, 그리고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祝福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올해는 우리 韓國防衛産業振興會가 창립한지 어언 2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며, 본 회가 발간하는 국방전문지 月刊〈國防과 技術〉도 이번호로 창간 17돌을 맞게 되었습니다. 애독자 여러분과 함께 이를 自祝하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편집관계자와 그동안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방위산업은 국민적 성원과 정부와 업계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오늘날 가장 중요한 戰爭抑止力으로 성장, 발전했으며 지난해에는 한국형장갑차를 수출하는 등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방산업계는 정부의 조달물량 감소에 따른 가동률 저하와 방산 전용시설의 유휴화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더 나아가 脫冷戰의 조류속에서 일부 계층 사이에 안보불감증이 만연되어 방위산업의 중요성마저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 심히 우려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최근 한반도 주변정세는 국제질서의 재편과정에서 이 지역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中國, 日本 등 역내국가들의 군비경쟁이 한층더 강화되고 있으며, 金日成 死後의 北韓은 권력공백의 장기화와 경제난, 식량난으로 체제불안이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타개하고자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휴전선 가까이 전진배치하는 등 한반도 적화야욕을 다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안정한 상황을 맞아 국가자존과 통일이후를 대비하는 장기적 관점에서 방위산업이 지속적으로 육성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방산업계도 변화된 경영여건에 적극 대처하여 경쟁력 제고와 기술발전에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韓國防衛産業振興會에서도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를 ‘방위산업 활성화 제고의 해’로 정하여 업계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타개하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선진외국과의 방산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촉진활동 등 국내 방위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韓國防衛産業振興會의 발전과 月刊〈國防과 技術〉誌의 발행에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당국 및 국군장병과 방산업계, 그리고 애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바랍니다.